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행인 근로자위원 대표 이현우 / 발행일 2026년 8월 6일(목) / 배포확인 금속노조 만도지부 / 제 02호

2026년 긴급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차 회의

- 장소 : 평택사업본부 본관 2층
- 일시 : 2026년 8월 5일(수) 09시30분 ~ 09시45분
- 참석 : 이현우 근로자위원 대표 외 10명, 조성현 대표이사 외 10명

말뿐인 반성, 아직도 비용 생각

또다시 노동조합을 우롱했다!

2차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긴급 회의가 열렸다. 지난 회의에서 알맹이 없이 제시된 회사안이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바랬다. 그러나 사측이 고민 끝에 내놓았다는 두 번째 안은, 지난번 제시안에 몇 글자를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실무협의에서 이미 의견의 일치를 본 1번 안전조차, 이번에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노동조합은 '실무에서 의견 일치된 안 보다 하향된 안이면 꺼내지도 말라'고 했지만, 사측은 몇가지 부사를 덧붙인 말장난으로 노동조합을 우롱했다.

말장난은 이제 그만

'노력한다', '검토한다', '최소화한다'는 음절은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는 것은 이미 14년의 학습으로 터득했다. 언제까지 허울좋은 껍데기만 내놓을 것인가! 사망 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앞에서 아직도 비용 생각을 하는 것인가! 설마 '검토한다'를 '적극 검토한다'로 바꾸면 노동조합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길 바란다. 진정 더 이상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원한다면, 실무에서 의견일치된 안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시민단체들의 연이은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이하 다시는)'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이하 민교협)'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앞에서 만도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생명보다 이윤에 혈안이 되어있는 HL만도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조작된 평택 산보위

사측은 갑자기 현장 게시판에 2분기 평택사업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자료를 게시했다. 그러나 이 회의는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다.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회의 개최 공고도 없었다. 사측은 지회 간부를 회유하여,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살펴볼 겨를도 없이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받아낸 서명을 근거로, 마치 노사가 함께 회의를 열고 인터락에 대해 합의한 것처럼 문서를 꾸며 게시했다.

이 사실은 저절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 몇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한 끝에 한 지회 간부가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야 모두가 알게 된 진실이다. 그 간부가 감당했을 무게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다. 자신의 이름과 신상이 걸린 문제를 홀로 짊어지고, 결국 진실을 밝히는 쪽을 택한 용기에 만도지부는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면담

폭염중대경보 아래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가족들과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면담을 가졌다.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가 미온적이고 수사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산재피해 유족들은 분노를 표했다.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 정성수 동지는 열린적도 없는 2분기 평택 산보위 회의 문서를 게시한 데에 강력히 의혹을 표하고, 지청에서 분명하게 수사하여 진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수사관을 배치하고 조합에 통보해주기로 답변받았다.

또한 노조와의 대화는 단절한 채 작업중지 해제만 몰두해 있는 사측의 행태를 언급하며, 노동부가 근본대책 수립에 대해 제대로 지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공문으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로 방문해 다시 한번 지도 할 것을 약속했다.

3.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해당 작업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니,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노동조합(근로자 대표)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서** 향후 동일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회사로 통보한 공문 중 일부

지부, 지회를 가리지 않고 간부들이 휴가를 반납한 채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원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다음엔 누구 차례가 될지 알 수 없다. 만도지부 이현우 지부장은 전사 산보위 말미에 ‘**노동조합은 산보위 개최를 원하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디 눈속임이 아닌 진정한 재발방지가 이루어 지길 바란다.